

# 원유값 상승 우유 소비자가 최대 9.6% ↑ ...1ℓ 에 2900원 육박

### 서울우유, 남양유업 등 흰우유 6.6~9.6% 올려 원유가격 인상에 물류·인건비 상승 영향 반영 커피·빵값 줄줄이 오르나...밀크플레이션 우려

지난달 원유 기본가격 인상 이후 최근 우유 업체들이 흰우유 가격을 최대 10% 가까이 올려 900㎖~1ℓ당 소비자가격이 29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가격 상승으로 커피나 빵 등 관련 제품 가격 올림도 우려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유가격 인상 이후 17일부터 서울우유는 흰우유 소비자 가격을 리터(ℓ)당 180원 올린 2890원에 판매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900㎖를 250원 올려 2860원, 남양유업은 230원 올려 2880원을 받으며 6.6~9.6% 인상됐다.

낙농업계와 유업체는 합의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소급해 ℓ당 49원 인상했다. 생산자와 유업체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원유 기본가격은 올 연말까지 ℓ당

999원, 내년 1월1일부터는 ℓ당 996원이다. 기존에는 음용유와 가공유 간 가격 차이가 없었으나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ℓ당 800원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흰우유 소비자가격 상승이 원유가격 상승 외에도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반적인 국내 경제 상황과 유제품 소비 위축 우려 등 경영 상황, 정부의 가격 인상 최소화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인 고물가와 국제 곡물 가격 등 생산비 상승 영향으로 우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 9월 기준 전년 대비 미국의 원유가격은 33.3%, 유럽연합(EU)은 46.1% 상승했다.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탈지분유 국제선물가격 상승률은 33.7%에 달한다.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커피나 빵류 등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을 뜻하는 밀크플레이

션 현상이 우려된다. 흰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가 첨가되는 커피 전문점 음료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유제품은 물론 빵, 생크림, 아이스크림, 커피 등 관련 식품 가격의 인상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장비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 우유 가격 인상 자체를 요청 중이다. 올해 들어 관련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전문점의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한다. 당초 원유 가격 결정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유가 공급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하던 것을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유 수급상황이 심하게 과잉되면 원유 기본가격을 30~70%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

도록 손봤다.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해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이슬 기자

## 삼성·LG, 경기 침체에도 TV 시장 글로벌 선두 지켰다

### 삼성전자, 30.2% 점유율...글로벌 TV시장 1위 LG전자, 올레드TV 10년 연속 1위 달성할듯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LG전자가 TV 시장의 선두 자리를 지키며 한국 브랜드 저력을 과시했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오픈디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글로벌 TV시장 규모는 7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829억3000만 달러에 비해 12.7% 감소했다. 판매량도 3분기까지 누계 1억4300만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했다.

3분기 누적 한국 업체의 금액 기준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p 하락한 47.2%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28.2%, 일본 13.5% 등의 순이다. 출하량은 1억4299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0만8400대 줄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까지 누계로 금액 기준 30.2%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TV 시장 1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네오 QLED와 라이프스타일 TV 등을 앞세워 3분기 누계 금액 기준 51.1% 점유율을 기록

했다. 한국 브랜드는 이 시장에서 72.3%의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삼성은 37.5% 점유율을 보였고, LG가 16.2% 점유율로 국내 업체들이 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이 주력하는 QLED 제품군은 올 3분기 누적으로 914만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846만대에 비해 8% 정도 증가했다. 이중 삼성전자가 672만대를 판매,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LG전자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첫 출시된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올 3분기까지 총 누적 출하량 1400만대를 돌파했다.

연간 TV 출하량의 30% 이상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LG 올레드 TV의 누적 출하량이 1500만대를 넘을 전망이다.

LG전자 측은 "10년 연속 올레드 TV 시장 1위 달성이 유력해졌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올레드 TV 가운데 LG전자의 점유율은 수량 기준 60%에 육박한다.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올레드와 LCD를 포함한 LG전자의 전체 TV 출하량은 1713만 1300대로 집계됐다. 올레드 TV는 이중 254만 5200대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3분기까지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17%를 기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TV 수요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LG전자 점유율은 적정 수준의 시장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출하량 조절 작업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단 LG전자의 TV 매출 가운데 최상위 라인업인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9%p 높아진 33.7%로 집계됐다.

김재환 기자

## 기업 67% 법인세 인하등 세제 개편안 찬성

### 조세재정브리프, 법인세 개선 방안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에 투자나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세연은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조절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은 결과 기업체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7.0%, '반대한다'는 대답은 33.0%로 조사됐다.

기업체 규모로는 중소기업(51.4%), 중견기업(71.8%), 대기업(83.3%)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는 68.6%가 찬성한다고 답해 기업체와 비슷했다. 전문가와 기업체를 합쳐 67.6%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찬성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다. '내수 진작을 유도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35.7%,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33.0% 순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로 나타났다.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로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의향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10%의 낮은 세율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83.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단속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필요하며 조세연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며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다. 그 결과 2021년 현재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p)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에서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와 고용도 늘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의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 전남도, 광주서 '김장대전' 할인 판촉행사...오는 26일부터 6일간

### 김장철 물가부담 완화·남도김치 소비촉진 기대

전남도가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남도김치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연다.

전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25일부터 6일간 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한 옐로우시티장성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서 '2022년 전라남도 김장대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김치생산자협회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센터 주관으로 여수 거품푸드, 고흥 자연지각, 장성 옐로우푸드, 새벽팜 등 전남 우수 김치생산 업체 10곳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선 가족과 함께 절임배추와 김치소를 이용해 김치를 직접 담그기 체험할 수 있다.

김장재료를 비롯해 배추김치, 갓김치, 고들빼기, 총각김치, 파김치 등 재미있고 맛깔 나는

남도김치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가격은 배추김치 1kg 5000원, 갓김치·갓장아찌 각 2kg 1만원, 고들빼기 1kg 1만원 등이다.

오는 30일에는 본격적인 김장철 김치, 절임배추 판매 확대를 위해 광주 양산동 주민센터에서 판촉행사와 함께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여기에 전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선 12월 15일까지 절임배추, 김치소, 고춧가루 등을 20% 할인(최대 1만원)된 금액에 판매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산 김치는 정정한 황토밭에서 자라 단맛이 나는



배추와 천일염, 찧갈 등을 원료를 사용해 신선하고 맛있다"며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시설에서 생산해 믿을 수 있는 남도김치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모두투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진행

### 최대 50% 할인 행사

모두투어가 올해 12월30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가격 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현재 여행 가능한 모든 여행지의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 가격과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메가 세일'이 기재된 모든 상품에는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또 매주 월요일 10시 쏟아지는 '선착순 4중 할인쿠폰팩' 이벤트에서 최대 10

만원 중복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과 '모두패이 1.5% 즉시 할인' 등의 결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만 진행되는 '타임딜'과 선착순 한정 등의 기회를 잡으면 최대 50%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모두투어 전진택 상품기획부 이사는 "해외 여행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은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상품과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이번 프로모션을 열며 내년 상반기에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